

# 내 생애는 스님되게 하소서 (하)

서진석 (인천시 남동구 간석1동)

아직도 현몽 스님하던 기억에 남는 가르침이 있는데, 바로 스님께서 행자들을 가르칠 때 종종 "못나고 굵은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며 당신 자신을 낮추셨던 말씀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스님의 그 말씀이 단순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말씀이 아니라 '중도'의 가르침까지 포함된 화두가 아닌가 싶다. 스님께서도 "너무 굵으면 나무꾼이 베어가고, 너무 무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곧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병폐가 생기 마련"이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봐서도 그런 것 같다.

다른 하나는 '연기'라는 말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에게 연기라는 말 자체가 낯설 뿐더러, 세상의 모든 현상 및 원리는 모두 연기에서 시작된다는 얘기를 처음 접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세상의 모든 현상이며 원리인 연기를 알면 불교를 다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기의 의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 결과가 만들어지고, 다시 그 결과가 또 다른 결과의 원인이 되어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지극히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이기에 뭔가 특별한 심오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던 나에게 조금은 실망스러웠던 것도 솔직한 심정이었다.

어쨌든 스님을 통해서 이 세상은 무상(無常)하며 무상하기에 공(空)한 것이고, 무상이라는 현상의 실체이자 원리는 연기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물론 이 두 스님 외에도 가끔 행자살에서 들려 왔던 것은 없는지 물어보시며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시던 보살 스님, 늘 기숙사 사강 같은 느낌의 원주 스님, 지금은 돌아가신 공양간 노보살님, 같이 밥 먹고 반찬만 들던 호순대과 고희대 보살님, 오래전에 열반하셨지만 어저대 가끔씩 면발치에서나마 뵈 수 있었던 희광승전 큰스님 등.

속물 철철 넘치는 나를 조금 철철하게 해주

셨던 분들이 지금 뇌리를 스쳐지나 간다. 솔직히 가끔은 그 분들 모두가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 불보살님들이 인간 몸으로 현신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상상도 해볼 정도다.

주위에 너무나 큰 스승들이 많으셨기에 결국 3개월간의 과정들을 마칠 수 있었고, 그간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나와 접할 계기도 됐다. 물론 그 모습이 본성인 진정된 나가 아닐지언정 어쨌든 허상일지라도 새로운 나를 계속해서 만나게 되면 언젠가는 진정한 나와 만날 날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송광사를 떠나오던 날 아침,

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위 친구나 동료들에게 가끔 나의 소원을 얘기할 때, "지금엔 처자식과 부모님 부양 때문에 어렵지만, 내생애는 꼭 스님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주위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도 "왜 하필?"하고 생각하는 느낌이다. 그러면서 "네가 생각하는 불교는 뭐냐? 내가 보기에 종교는 다 똑같은 것 같더라" 혹은 "불교 미신 아니냐? 집이나 보고!"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그에 대한 답은 생활 속에서 느끼는 나만의 불교로 답을 대신하면서 이 글을 마감하고자 한다.

## 단기출가 마친 후 새로워진 '나' 발견 마음 진실해야 좋은 인연 가꿀 수 있어

새벽예불을 마치고 집을 켜 다음 안개가 걷히지 않은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서 여러 번 뒤를 돌아보며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재촉했던 그 상황이 눈에 선하다.

벌써 송광사에서 생활도 15년 전의 일이 되어 가물거릴까만 하다. 물론 지금은 결혼을 해서 남편이자 아빠로, 직장에서는 관리자도 평범한 도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바쁘다는 핑계로 법회에 참석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길가다 문득 마주치는 사람에서 진정된 사람으로의 변화를 느끼고, 법당의 부처님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 편안함을 느끼며, 가끔 뉴스에서 불교계에 경사가 나면 같이 기뻐하고 후안무개한 일이 있으면 같이 분개하고 가슴 아파 한다.

왜냐하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 자신이고, 나의 스승이며, 나의 부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나의 일

일마 전부터 나는 그간 직장 내에서 무난하게 지냈던 동료직원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 그 동료의 경력은 좀더 위였지만 운이 좋았는지 내가 빨리 직책이 올라가면서 엔지니어 사이가 예전 같지 않게 되었다. 솔직히 나도 그 동료에게 여러모로 신경을 써준다고는 했지만 사실 순수한 동기보다는 그 동료의 상사로서 그 친구를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그런지 솔직히나 사석에서 괜히 그 동료를 의식하게 되고, 그 동료를 생각해서 했던 말도 순수하게 전해지지 못했다. 처음엔 "내가 정말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하는 생각에 답답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담기지 않은 행렬을 보자마자 상대방이 잘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반감만 키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역시 '인과응보'이고, '연기'라고 생각한다. 참 신기하게도 겉으로 전혀 내색하

지 않았다고 하지만 마음끼리는 전답이 되었다. 그렇기에 인연의 시작에서는 과거의 수많은 업으로 인해 좋고 나쁜 이미지가 나뉠 수 있어도, 결국에 좋은 인연으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신, 구, 의 삼업 모두가 진실하고 자비로워야 상대방이 나에게 보내는 신 구 의 삼업도 진실하고 자비로울 수 있음을 새삼 깨닫는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얼마 전 사회적으로 상당한 명예와 부를 얻으신 분을 차로 모실 기회가 있었다.

차 안에서 내가 먼저 "남부럽지 않을 만큼 명예와 부를 얻으셔서 행복하시겠어요"하고 묻자, "그래도 누구나 자기 뉘끼의 과거에 대한 후회와 현재의 의로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지 않겠나"라고 답하는 것이었다.

사실 나 자신이 그 분의 경지에 오르지 못했기에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이 최고의 가치인양 추구하고 쫓아서, 결국 구한다 하더라도 자기 본성을 찾아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이상, 누구나 자기의 참다운 삶이 아닌 돈과 명예와 권력의 노예로 살 수 밖에 없다는 얘기이며, 그러기에 참다운 행복을 느낄 수도 가질 수도 없다는 뜻으로 생각한다.

불교는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왔던 사람들이 입문해야 하는 종교이다. 왜냐하면 유일신이 있어 무조건 믿기만 하면 천국행 티켓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종교가 아닌 것이다. 우리 중생들이 과거 수 억겁을 윤회하면서 겪었던 생로병사의 고통을 현재도 되풀이하고 있고,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이상,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되풀이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 몸 받았을 때 하루 속히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만나 참 본성을 깨우치고, 중생을 위한 보살도를 행하며, 좋은 인연공덕들을 쌓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공'과 '무상' 또한 근거 약한 중생들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만나고도 돈, 명예, 권력 등 허망한 것들에 현혹되어 퇴보심을 낼까 걱정되어 현상계의 실체를 보이기 위한 방편설인 것이다.

지금까지 보잘 것 없는 글을 읽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든 사람들이 성불하길 바란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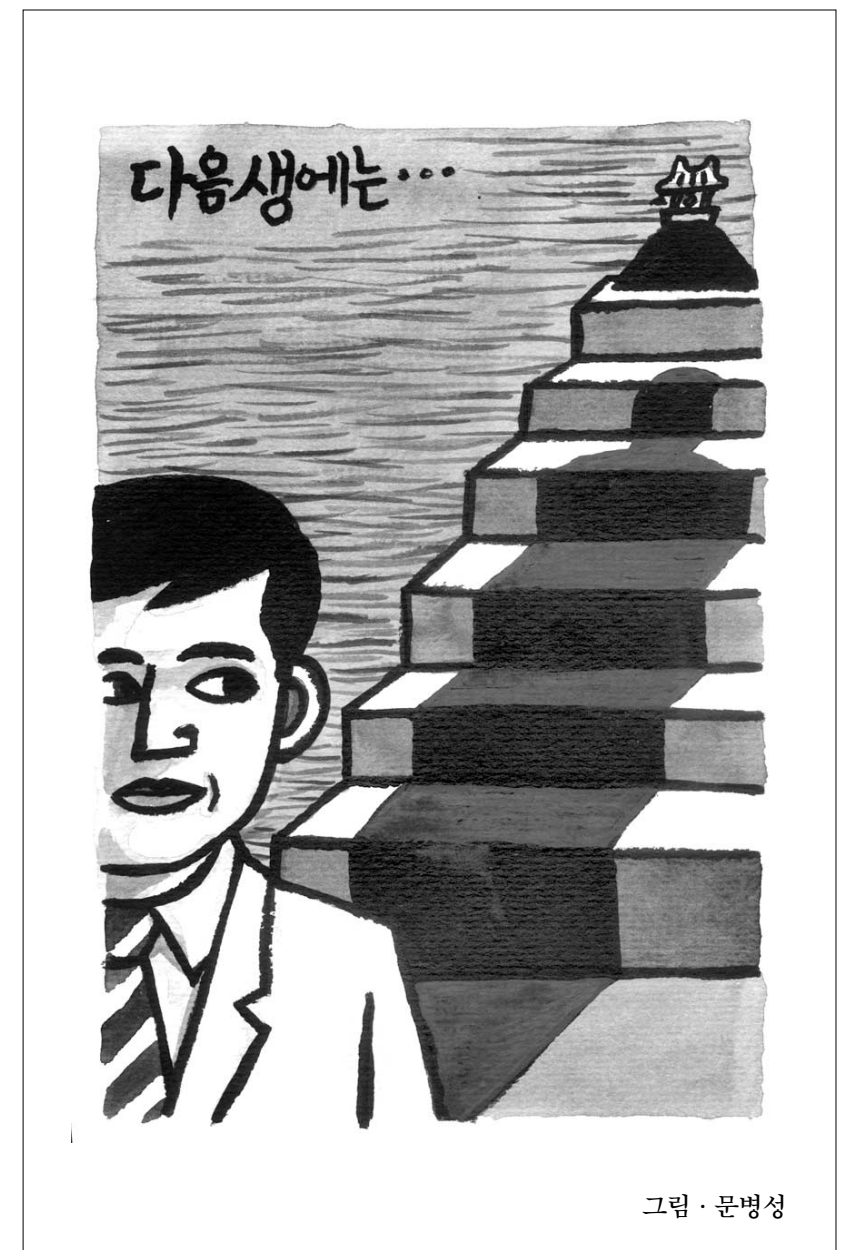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이었던 감동들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상쾌한속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 **목걸이, 팔찌**: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당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억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 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장정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기문 명리학**  
(특강: 수지침, 관상, 풍수, 작명, 택일)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시접수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대학과 방송국에서 강의 중)

**초단기 전문가 양성 시스템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정복  
(취업 보장)**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근처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접수 연락처 02)454-3369  
011-775-8709 (지선 법사)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중  
특별강의: 사주학, 기문둔갑

**부처님 호흡법**  
참선기초 기본수련  
"자동 단전 복식 호흡법"의 비밀이란?

◆ **자세법**: 가부좌, 반가부좌, 평좌, 무릎 꿇기, 고두테 변형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장래자세, 일어선 자세, 행선, 와선

◆ **호흡법**  
● 들숨: 배꼽아래 3지 단전이 아닌 치골부분으로 짧고 강박하게 숨이 저절로 내려가며, 가슴 찡크라와 단전혈이 열리며 부처님과 인연된 가장 밝은 기운이 모이며, 감정통제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끊임없이 나와 마음이 저절로 조율되어 일체의 근심걱정, 상념,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 날숨: 가슴과 고고하고 고요하게 저절로 쉬어지며 엔돌핀, 다이나민, 도파민 등의 쾌적·쾌락 호르몬이 나와 에너지로 전환될 때 뇌파에서 α파와 θ파가 나오며 수행 삼매를 체험하게 된다.

◆ **숨을 규칙적으로 잘 쉬는 법: 질을 규칙적으로 잘 하는 법** (참고비법 (정선스님 지음))

○ 몸과 숨의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음을 보는 알아차림의 뚜렷한 경지를 초월하고 쉽게 경험하게 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빠른 수행법으로 고요하며 맑고 밝은 지혜를 체득한다.

○ 참선, 위빠사나, 절, 염불, 독경, 요가 (킵푸터·수행법) 수행 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뜨겁고 하품이 나오면 호흡수행을 잘못된 것으로 수행을 중단해야 한다.

○ 코끝에 입 벌리고 잠잘 때 가슴이 막히고 목이 차가워지며 단전복식호흡이 되지 않아 뇌의 산소부족으로 인해 뇌파파고 정신이 맑지 않아 수행의 가장 큰 적이 되며, 만병의 근본원인이 되고 불행의 길이다.

○ 가장 완벽한 예방의학이며 치유가 확실한 대대의학으로 「상기행, 황병, 당뇨, 고혈압, 소화불량, (복부)비만, 손·발·배·허리 냉증, 무릎병, 디스크, 안구 건조, 피부겨짐, 아토피, 천식, 비염, 변비증, 우울증」 등을 수행을 통해 극복할 수 많은 체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왕정사 홈페이지와 다음카페 참고바람)

◆ **수련일시**  
● 서울 군자법당: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부산 금정법당: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4시,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신규 수강생은 청장수강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청 건 스 님 011-9088-9449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수능수험생을 위한 특별기도  
제 53회 **3000배 철야정진**

평소 같고 닳은 실력 100% 발휘를 위한 기도!  
수는 고득점, 만점을 위한 기도!  
긴장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위한 기도!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를 주는 기도!

500만 배 성만한 청춘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마소리에 맞춰 성스럽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를 끊임없이 염송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100% 기도 성취의 대 공경의 감사로 학업성취의 큰 소원을 이룩합니다.

◆ **날 짜**: 2005년 11월 19일(토요일) 저녁 9시~일요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동침비 2만원  
기도포(의수화), 수건 2개(담 뒤를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수련복(하의)2매, 간단한 간식, 물병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 **장소**: 하얀마음선원  
☞ 전철: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로보 5분거리 (분당선: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북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민일절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 서울 군자법당 02) 456-4994, 0035  
☞ 지하철 5,7호선 군자전철역 4번 출구 백악관 방향 200M 이망스 가구 4층  
○ 부산 금정법당 051) 583-7886  
☞ 지하철 1호선 두산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최회전 50M 경주빌딩 4층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부산은 노포동 터미널에서 분당행 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재가자 자기수행 및 단기 출가**

귀의상보 하숙고, 모든 이들이 중요, 성명,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게 하여 이다. 禪 수행 보리도량 비로선원에서는 구도심과 정진력 있는 재가 불자님과 자기수행을 원하는 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일상의 탈출과 물욕의 세상을 넘어 자아실현을 돕고 계 합니다.

**대상** 나이와 학력에 관계없이 대중심(수행)에 건강상 문제가 없고 참선수행 단기 출가를 관심하는 불자님

**자격** 재가선원, 사찰수련회, 템플스테이, 유경원자 본 선원의 수련은 참선과 예불, 경행과 조사어록 강독으로 참선수행과 자기개발에 역점을 두고, 수련자의 근기와 수행력을 수시 점검합니다.

**입방인원** 8 ~ 10명  
**접수일자** 2005년 11월 1일 ~ 11월 30일

- 1차 2005년 11월 16일 ~ 12월 15일(30일)
- 2차 2005년 12월 16일 ~ 12월 30일(15일)
- 3차 2006년 1월 13일 ~ 2월 12일(30일)

**수련실금 동침비**

- 1차 - 30만원 ● 2차 - 20만원 ● 3차 - 30만원

**전화면접 및 사전접수 요합니다.**  
\* 1차 입방이 허락 되신 분은 2005년 11월 14일 (음10월13일) 14시 도착

**결제일** 2005년 11월 16일 을유년 등안계 (음10월15일)  
**오시는 길과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사무국 전화: 052)264-7627

대원불교 조계종 선수행 보리도량  
**비로선원**